

수능완성 선진유학 중요 제시문

공자

인과 예

非禮勿視 非禮勿聽
비례물시 비례물청

▶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非禮勿言 非禮勿動
비례물언 비례물동

▶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사력을 다해 선한 도(道)를 지킨다. 위태로운 나라에 가서 벼슬하지 않으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은거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빈천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귀를 누리도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면 인(仁)하게 된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 할 것이다.

군자는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으며, 거처하는 데 편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하고, 말은 신중히 하며, 도(道)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는다. 그러면 가히 배우기를 좋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스승님,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 한다네.

그러면 어진 사람[仁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사람이라네.

정명

군주는 군주답고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한다. 만약 이름[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되고,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대동사회

대도(大道)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천하가 만인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 자와 능력 있는 자를 관직에 임하게 하고, 신의와 화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재화를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으며,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자식이 없는 노인과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모두 부양받을 수 있게 한다. 간사한 꾀는 막혀서 일어나지 않으며, 도둑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일도 없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정치를 하면서 살인의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스리는 자가 선(善)을 추구하면 백성도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으로 소인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하는 것도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정치에 나아가 남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러니 어찌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귀(富貴)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말아야 한다. 빈천(貧賤)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군자가 인(仁)을 버리면 어떻게 그 이름을 얻 겠는가?

정치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끝내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군주는 재화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지 못할까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할까 걱정한다. 공평하면 가난이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이 화목하면 백성이 줄어들 일 이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위험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데도 먼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학문과 덕을 닦아 그들이 오게 하고, 오면 편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부모만 부모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자식이 없는 노인도 모두 부양받을 수 있게 해 야 한다. 이로써 대동(大同)을 이룰 수 있다.

맹자

성선설

사람은 모두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불인인지심)]이 있다. 선왕들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않는 정치를 하셨다.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않는 정치를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 위에서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사람은 모두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자마자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며 측은한 마음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측은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오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의 마음은 인의 단이고, 수오의 마음은 의의 단이고, 사양의 마음은 예의 단이고, 시비의 마음은 지의 단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이 있는 것은 마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단이 있는데 인의예지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우리 임금은 인의예지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나에게 있는 네 가지 단을 모두 넓히고 채우면 불이 비로소 타오르며 샘이 비로소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참으로 이것을 채우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채우지 못하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이 내린 벼슬[天爵]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人爵]이 있다. 인의충신(仁義忠信)을 행하며 선을 즐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고, 공경대부(公卿大夫)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벼슬을 닦으니 사람이 주는 벼슬이 따라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벼슬을 닦음으로써 사람이 주는 벼슬을 요구하고,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게 되면 하늘이 내린 벼슬을 버린다.

성을 알면 하늘[天]을 안다. 입이 좋은 맛을 추구하고, 몸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성이라고 하지 않고, 부자 사이의 인(仁), 군신 사이의 의(義) 등을 성이라고 한다.

선생께서는 버드나무의 성을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까? 아니면 버드나무의 성을 해치고서야 그릇을 만드 십니까? 만약 버드나무의 성을 해치고서야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을 해쳐야 인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선생의 말은 천하 사람들을 몰아서 인의를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仁), 수오지심은 의(義), 사양지심은 예(禮),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端)이다

사람에게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 사람의 선한 본성은 미미한 상태에 있기에 나쁜 행동에 의해 거의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수와 멀지 않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것이니, 올곧음[直]에 의해 길러지고 사악함에 의해 해를 입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게 된다. 이 기는 항상 의(義)와 도(道)와 함께하는 것이니,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활력을 잃고 시들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를 모음으로써[集義] 생겨나는 것이지, 우발적인 옳은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의(禮義)를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자신은 어질고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 자입니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에게는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선왕도 이 마음이 있어서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산(牛山)의 나무숲은 일찍이 무척 아름다웠으나 큰 나라의 교 외에 있었던 까닭에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마구 잘라 내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나무들은 밤낮으로 자라고 비와 이슬에 젖어 새싹은 늘 돋아나지만,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 어다가 풀을 먹여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민둥산을 보고 일찍이 좋은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찌 산의 본 성이겠는가?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엔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 사람들이 그 타고난 마음[良心]을 잃어버리는 것은 도끼로 찍어 나무를 베는 것과 같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짐승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고자: 성(性)은 버드나무이고 의(義)는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의 성을 가지고 인의(仁義)를 행하는 것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지요.

맹자: 선생께서는 버드나무의 성을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까? 아니면 버드나무의 성을 해치고서야 그릇을 만드십니까? 만약 버드나무의 성을 해치고서야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을 해쳐야 인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생의 말은 천하 사람들을 몰아서 인의를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자: 성은 고여서 맴돌고 있는 물과 같습니다. 동쪽으로 터 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 주면 서쪽으로 흐르지요. 사람의 성에 선과 불선의 구분 이 없는 것은 마치 물에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 물은 진실로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는 것인가요? 사람의 성이 선함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선 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 물을 손으로 쳐서 튀어 오르게 하여 이마 위를 넘길 수도 있으며, 격하게 흐르게 하면 산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성이겠습니까.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불선을 하게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맹자의 정치사상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백성은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천하를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 백성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게 된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이면 그들을 위하여 모아 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인(仁)으로 돌아 가는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가고 짐승이 넓은 들로 달려 나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나니 이로움[利]이 아니라 인의(仁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군주일지라도 인을 해치면 도적이고, 의를 해치면 잔악한 자일 뿐이다. 그런 자는 이미 군주답지 못하기에 바꾸어야 한다.

힘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은 패도(霸道)이니, 패도를 행하려면 반드시 큰 나라가 필요하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이니, 왕도를 행하는 데는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 무력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힘이 부족한 사람을 억지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일 뿐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덕으로써 남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순자

성악설

성(性)을 따르면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선왕(先王)들이 노력하여 예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성(性)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니 이를 그대로 따르기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이목(耳目)의 욕구가 있어 현란한 색깔과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니 이를 그대로 따르기에 음란이 생기고 예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스승의 가르침과 예의에 의한 지도가 있는 연후에 사양이 생기고 이치에 들어맞는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기에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추구함에 한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고 다투면 어지러워진다. 선왕(先王)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했기에 예의를 제정하였다.

사람에게는 천자처럼 귀해지고, 부(富)로써 천하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성정(性情)이 있다. 사람의 욕구만 따르면 자원은 넉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각자의 몫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을 하도록 맡겨서 그 합당함을 얻도록 한 것이다.

예(禮)는 어찌하여 생겼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다.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툼이 없을 수 없으며, 다투면 어지러워진다. 성왕(聖王)들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해 신분의 분별을 정함으로써,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욕망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무분별하게 추구하지 않고, 또 욕망의 대상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예가 생겨난 까닭이다.

성(性)과 위(僞)는 다르다. 성은 타고난 것이기에 배우거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는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은 성이고, 배고파도 부모나 어른을 위해 먹지 않고 사양하는 것은 위이다.

